

23일 Market Index			
코스피	8203.84	코스닥	891.52
	(-910.71)		(-76.88)
금리 (연이자율)	3.770	환율 (원/달러)	1537.15
	(-0.040)		(+0.15)

명품·약국 찾고
맛집 줄서고
명동 '핀포인트' 관광
03



원화 급락 했지만... 유동성 우려 제한적

고환율 뉴노멀 시대 ①1500원 웃도는 환율

저환율 시대(원화 강세·달러 약세)가 저물고 고환율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채권·주식에 몰리는 돈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과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일반화되는 뉴노멀 시대가 예상된다. 고환율은 물가와 가계경제에 치명적이다. 고환율 시대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어섰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2월(1626.7원) 이후 28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제2의 IMF'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시장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외환보유액과 외채 구조, 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지표가 외환위기 당시와는 크게 달라 실제 외환위기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분석이다.

2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주간 거래 증가(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21.4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월별 평균 환율과 비교하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1626.7원) 이후 28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환율이 가장 높았던 2009년 3월(1453.3원)보다도 약 70원 높다. 원화 실질 가치도 하락했다.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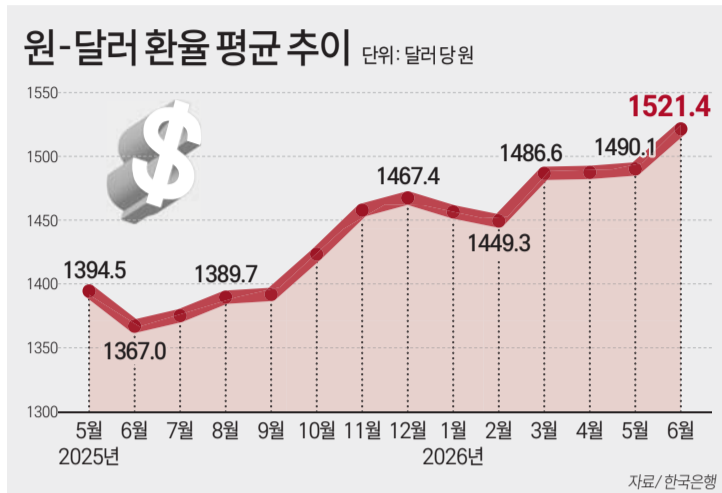
원화 가치 17년만에 최저치 '제2의 IMF' 거론 되지만 외환보유액 당시의 20배 '대외건전성은 경계 필요'

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원화의 5월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84.75(2000년 수준=100)로, 전월보다 0.32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79.31) 이후 17년 2개월 만에 최저치다.

실질실효환율은 국제 교역에서 원화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원화의 실질 가치가 다른 나라 화폐보다 떨어졌다는 의미다.

◆ 28년 만의 초고환율... 원화 가치 추락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기준금리를 3.50~3.75%



로 동결하면서 올해 연말 금리 수준을 예측하는 점도표(Dot plot)에서 중간값을 3.8%로 제시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19일 장중 101.123까지 뛰어 작년 5월 16일(101.256)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달러인덱스는 지난달 6일 장중 97.620으로 단기 저점을 찍은 뒤 점차 반등해 이달 17일 이후 100선을 넘어선 상태다.

주가 급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은 원화 약세를 계속 자극하

고 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20조2123억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달에만 20조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 '외환위기(IMF) 때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국내 대외 건전성 지표가 과거 위기 당시와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단순한 환율 급등이 아니라 외환보유액 부족, 단기외채 상환 압박,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경색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1시40분~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HBM4 누적매출 10억 달러 돌파 삼성전자, AI메모리 반격 신호탄

세계 첫 양산 4개월 성과 엔비디아·AMD 공급확대 HBM 시장선점 전략 마련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양산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앞세워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탈환에 시동 걸었다. 업계에서는 HBM3E 시장에서 앞서 있는 SK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수익성, 장기공급계약 확보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가 출시 약 4개월 만에 누적매출 10억달러(약 1조5400억원)를 돌파했다.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에 나선 이후 빠른 공급 확대에 힘입어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현재 공급 확대 속도를 감안할 때 이달 말 기준 누적매출이 12억달러(약 1조8500억원)를 넘어설 가능성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삼성전자 HBM4는 코어 디에 10나노급 6세대(1c) D램 공정을, 베이스다이에는 4나노 로직

공정을 적용해 메모리와 파운드리 역량을 동시에 활용한 제품이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11.7Gbps로 업계 표준보다 약 46% 빠르며, 단일 스택 기준 총 메모리 대역폭은 3.3TB/s에 달해 대규모 AI 연산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 마련에도 나선 모습이다. 지난 18일 전영현 부회장 주재로 열린 반도체(DS) 부문 글로벌 전략회의에서는 고객사별 HBM3E를 비롯한 HBM4·HBM4E 공급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구글 등 주요 고객사를 겨냥한 공급 확대 전략과 수주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다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메모리 제품에 대한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사업 안정성과 수요 가시성을 높이고, 고객사의 중장기 수요를 기반으로 투자 규모와 생산능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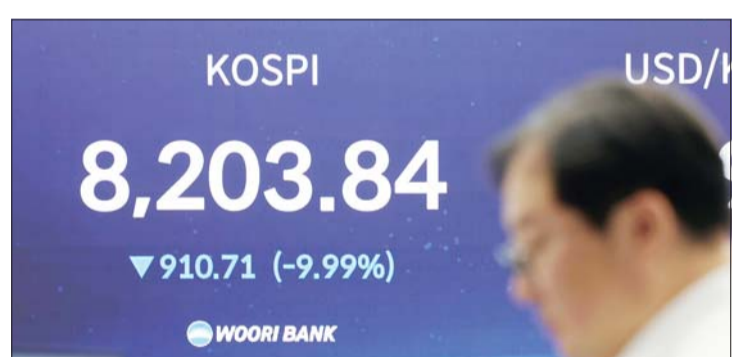


외국인 반도체 매물폭탄... 코스피 10% 폭락

거래소, 코스피 8203.84 마감 하루새 시가총액 743조 증발 31만 전자, 250만 닉스로 밀려

코스피가 '외국인 반도체 매물 폭탄'과 누적된 약재로 10% 가까이 급락하며 '검은화요일'을 맞았다. 연초 이후 100조원 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으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99% 내린 8203.84에 마감했다. 사상 최대 하락폭이다. 하루 만에 9000선과 8300선을 내렸다. 코스피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와 '셔킷브레이크' (주식 매매 일시 정지)가 동반 발동했다. 이날 하루에 증발한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743조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9114.55)보다 910.71포인트(9.99%) 하락한 8203.84에 장을 마감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달한다. 이 중 삼성전에서 사라진 돈이 531조원에 달한다. 코스닥 지수도 7개월여 만에 900선이 무너지며 891.52에 마감했다.

특히 '9천피' (코스피 9000)를 이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1만 전자' (증가 31만원), '250만 닉스' (255만5000원)로 밀려났다. 삼성전기와 현대차도 각각 10.68%, 12.05%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외국인은 이날 3조3309억원을 포함해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 100조 8826억원 어치를 팔았다. 1539.1원(오후 3시 30분)까지 오른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외국인을 내몰았다.

지난달 27일 처음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로의 수급 풀림도 시장에 충격

을 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시가총액) 규모가 14조원을 돌파한 뒤 급증하고 있다. 투자자의 92%가 개인투자자'라며 '반대하지 못해 후회한다'고 했다. 특히 빛을 내 투자하거나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주식이 강제 청산을 당하거나 손실이 2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8조5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고치다.

미국의 물가 불안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 우려와 미국 거대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수익성과 투자에 대한 걱정, 미국과 이란 간 종전 불확실성도 '검은화요일'을 부추겼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국힘 중진·천하람·한동훈 한자리에... '선관위 확 뜯어고쳐야' /사진 뉴시스
- ▲국힘, 선거관리 개혁 6·3특위 출범... '부실·비리 얼룩 성역 깨고 재판 짜야'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 흥정 대상 아냐... 합의 안 되면 표결해야"
- ▲종합특검, 여인형 전 사령관 체포... '방첩사 블랙리스트' 조사

- ▲조국혁신당 신장식, "노무현 가치 훼손 시도 단호하게 맞설 것"
- ▲인사청문회 이틀 앞두고 한성숙 총리 후보자 소유 건물 불법증축 시설 철거